

쿠바 안전여행 Q&A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 입국 비자 및 환전 관련

쿠바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출발지 공항에서 관광비자(VISA-TARJETA DEL TURISTA)를 구입하면 됩니다.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멕시코시티 공항의 경우 미화 19-20달러, 뉴욕 등 미국 공항에서는 미화 50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구입합니다.(한국에서는 여행사에서 비자 구입 대행)

※ 관광비자는 30일간 유효하며, 입국시 입국 스탬프를 찍어주고 한쪽을 회수해 갑니다. 출국시에는 나머지 한쪽을 제출해야 하므로 여행기간 내내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입국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주는 경우도 있음)

쿠바에서는 어떤 화폐를 사용하며, 환전은 어떻게 하나요?

☞ 쿠바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2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태환 화폐인 CUC(‘쿡’ 또는 ‘세우세’로 발음)와 쿠바인들이 사용하는 CUP(페소)가 있습니다. 환율은 1CUC=1USD, 1CUC=24CUP입니다.

※ 환전은 공항에 도착하여 환전소(CADECA: Casa de Cambio)에서 가능하며, 호텔마다 카운터에서 환전하거나 환전소가 있는데, 일반 환전소보다 호텔 환전소가 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합니다. / CUC 지폐는 PESOS CONVERTIBLES 라고 적혀있으니 CUP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10% 수수료를 공제하므로, 유로화, 캐나다 달러 또는 멕시코 페소를 지참하고 가시는 것이 환율에 있어 조금 유리합니다. 다만, 일부 호텔에서는 미국 달러만 환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터넷 사용, 대중교통 이용정보

쿠바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쿠바에서도 데이터 및 전화 로밍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밍 요금이 워낙 비싸서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로밍을 차단하고, 현지에서 인터넷(와이파이) 카드를 구입하여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호텔, 공원 등 일부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만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카드는 쿠바 국가통신사 ETECSA에서 판매하는 nauta 카드로, 1시간 사용에 1CUC, 5시간 사용에 5CUC입니다. 다만, 일부 호텔에서는 카드 금액이 인상되기 전 가격인 1시간에 4.5CUC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와이파이 존으로 가서서 카드 뒷면 사용자(USUARIO) 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CLAVE/PASSWORD)를 동전으로 긁어서 입력하면 연결됩니다.

△ 수도 아바나 이외 지방에서는 와이파이 존이 드물며, 전화 연결 상태도 좋지 않아 국내 가족으로부터 연락두절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버스나 택시 요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 쿠바에서는 중남미 여타 국가와 달리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원 버스에서 소매치기 사례는 흔히 발생하고 있으니 여권과 소지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시내버스 요금은 보통 1CUP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통상 외국인은 CUC 화폐를 소지하므로 1CUC를 지불하면 1CUP의 24배에 해당하지만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버스 이용시에는 미리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페소화(CUP)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택시는 탑승하기 전에 가격 흥정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CUC이면 도심 내 이동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택시기사가 10CUC이상을 요구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협상한 후 탑승하고, 내릴 때 거스름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안상황 일반

쿠바는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치안상황이 어떨까요?

☞ 국가가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통제하고 있어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중남미 여타 국가에 비해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쿠바정부 스스로 홍보하고 있으며, 실제 체감치안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쿠바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노린 생계형 범죄(소매치기, 절도 등)를 범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 어느 여행지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여권과 신용카드 등 귀중품 도난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크로스백에 여권과 귀중품을 넣어 몸 앞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도난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주요 사건사고 유형 및 대처방안

쿠바 여행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유형과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소매치기 등 도난사건>

☞ 도심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바(bar)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어 둔 가방을 통째로 가져가거나, 뒷주머니 지갑을 소매치기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권을 도난당했을 경우, 아바나 Miramar 지역에 위치한 KOTRA 아바나 무역관을 방문하여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신 후, 무역관에서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으로 신청서를 보내고 멕시코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한 후 DHL로 다시 무역관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경우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단수여권은 신원조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당일 발급 후 DHL 송부가 가능하나, 전자여권 재발급은 단수여권 발급에 비해 5일 이상 더 소요됩니다.

- 참고로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단수여권으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므로, 비행 스케줄을 바꾸시거나(멕시코, 러시아 경유시 단수여권 가능), 일반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비자는 아바나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가서 받으셔야 합니다.

☎ KOTRA 아바나 무역관 : 주소) Avenida 3ra. entre 76 y 78, Edificio Santa Clara, Oficina 412, Miramar Trade Center, Habana, Cuba
전화) +53-7204-1020,1117,1165 이메일) jbyslee@kotra.or.kr

★ 경찰 신고 : 현지어(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아시는 분은 공중전화를 이용 106번으로 신고하면 현장으로 경찰 차량을 보내줍니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여행객은 호텔이나 민박집(Casa particular) 주인에게 부탁하면 경찰을 불러주고, 특히 민박집 주인은 신고까지 도와줄 수 있으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리 외교부 영사콜센터(+82 2 3210 0404)로 전화하여 전화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사협력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멕시코대사관에서 협조를 요청해 드립니다.

☎ 멕시코대사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휴대전화 : +52-155-5437-8587

- 경찰신고를 통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여권 및 비자 분실을 입증하고, 여행자보험이나 카드사 신고 및 보상 청구시에 입증자료로 경찰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도난 유형>

☞ 공항에서 택시기사가 외국 여행객에게 경찰이 단속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모든 소지품을 트렁크에 싣도록 유도한 다음, 목적지(호텔, 민박집 등)에 도착한 후 짐을 내려줍니다. 객실에 들어가서 짐을 풀어보면 현금이나 귀중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 쿠바에서 아직도 운행되고 있는 1950년대 올드카는 트렁크가 넓습니다. 트렁크 안에 공범자가 타서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탑승을 하더라도 경찰이 단속하는 법은 없으니 현금과 귀중품이 든 가방은 손에 들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대상 성범죄>

☞ 외국 여성 여행객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근육질의 쿠바 남성들이 외국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음주 후 성폭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료에 환각성 약물을 투입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 우리나라 시각에서 성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스킨십이 일상화 되어있는 쿠바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주변인들도 단순히 호의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정도이니 개별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건전한 의도를 느낄 경우

일단 자리를 피하시고, 민박집 내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숙박 장소를 옮기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객 대상 강도 등>

☞ 아바나 중심부에 외국 관광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바(bar),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 주변에 취객을 노리는 절도범이나 강도범이 있습니다.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급습하여 소지품을 강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지만, 부득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위에 소개된 소매치기 등 도난사건 대응방법과 같이 침착성을 유지한 가운데, 경찰 직접신고, 영사콜센터를 통한 신고, 멕시코대사관 연락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신고>

☞ 쿠바에 여행을 간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실종신고에 대해 즉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나 탐문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국하시기 전에 일자별 투숙 장소(예약한 경우)와 현지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남겨주시고, 현지에서 여행일정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즉시 국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 아바나의 경우에도 호텔이나 공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고, 지방에서는 통신사정이 더욱 열악하므로, 여행 전에 이러한 현지 환경을 가족이나 지인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